

일주문

월주 스님 비구니회 기금 전달
조계종 원로 월주 스님은 6월 3일 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회관 운영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제15회 호국영령천도법회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6월 22일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15회 호국영령천도법회'를 진행했다.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은 6월 24일 하안거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를 개최한다. (041)330-7700

월정사 8각 9층탑 탑돌이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14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탑돌이 법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발전기금 전달
의성 교문사 주지 호성 스님은 6월 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공모

주영은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은 6월 30일까지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시상부문은 학술상과 예술상 2개 분야다. 학술상은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를 출간한 이나, 최근 2년 이내 출간한 학술연구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상은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미술·연극·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최근 2년 이내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상금은 각 500만원이 수여되며 수상자 발표는 8월 중순 시상은 9월 24일 진행된다. (02)586-6521 노덕현 기자

환측
김규보 법보신문 기자

김규보 법보신문 기자는 6월 22일 오후 1시 40분 서울 덕진벤션 교동회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부 강미희 씨와 환측을 밝힌다. (010)2746-7810
양원준 조계종 사회부 행정관
양원준 조계종 사회부 행정관은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라루체 4층 아이리스홀에서 신부 이명선 씨와 환측을 밝힌다. (010)3887-9292

“불교학위, 평생교육원서 받으세요”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장

동국대 평생교육원이 교육부장관이 규정한 학점은행제 불교학전공 표준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에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불교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장(사진)은 6월 11일 간담회를 갖고 평생교육원 학사학위 과정 불교학 전공 개설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국내 최초 불교학 전공 신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불교학 전공의 신설은 1998년 학점은행제교육이 시작된 이래 그 동안 불교계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숙원사업이었다. 1999년 기독교신학 전공이 신설되고 2004년에는 가톨릭신학 전공이 신설되어 수많은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에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신학 공부와 질 높은 신앙생활을 병행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불교학 전공은 최근까지도 표준교육과정조차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웃 종교에 비해 많이 늦었고 여러 이유로 미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학과 교수인 제가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꼭 이 과제를 이루고 싶었다는 발원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끝에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이 개설되고 앞으로 각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 불교학 과정이 신설된다면 불교학 박사학 수료자들에게도 강의의 기대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교학 전공의 신설을 통해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에게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불교학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불교학자의 연구 활성화와 강의 기회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국 주요 사찰의 불교교양대학을 학점은행제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불교의 발전과 새로운 불교신행문화의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올 12월 수강생을 모집 2015년 3월부터 주·야간, 주말반 등으로 나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02)2260-3730 정혜숙 기자

영암 대종사 열반 27주기 다례제



봉은사(주지 원학)는 6월 4일 봉은사 범왕루에서 ‘영암대종사 27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원로회의 의장 믿음 스님은 “오늘날의 봉은사 면모가 2만평의 규모를 가질 수 있던 것은 영암 스님의 큰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영암 스님 기일에 봉은사 전신도가 동참해서 추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례제에는 문도대표 대운 스님, 해인사 원로 도성 스님 등 500여 대종이 참석했다. 원학 스님은 “영암 스님은 공사가 분명해서 해인사에 주석하시 때도 심지어 연장도구 하나도 사중용과 개인용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정도였다”고 추모하면서 스님의 큰 가르침을 본받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4년 제12회 대원상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2014년 제12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3인) 이내를 시상하며,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DRAMA(다큐+드라마) 및 영화, 애니메이션, INFORTAINMENT(정보+오락), 오디오(작곡 등), 미술·일라스트레이션 등 관련 분야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장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편, 대원상(大圓賞)은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포교대상·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02)719-2606, 719-1855 정혜숙 기자

수불 스님,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 전달

제2건학기금·장학기금 등 총 30억 원 넘게 쾌척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수불 스님은 6월 11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로 수불 스님이 동국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30억 원을 넘어섰다. 수불 스님은 그동안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과 불교학 연구, 국제선센터 지원 및 장학기금 등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해왔다.

수불 스님은 “도서관은 학생들이 학업에 힘쓰며 꿈을 키우고 연구자들의 지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동국대가 한국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세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 모금도 원만성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계환)은 수불 스님의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중앙도서관 3층 IC ZONE 컨퍼런스룸을 ‘수불 컨퍼런스룸’ 명명해 헌정했으며, 평생 도서대출증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나눔의 집 배춘희 할머니 별세

정부지원금 모아 3000만원 승가대 기부... “불교 귀의 못한 것이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91) 할머니(사진)가 6월 8일 오전 5시 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입소자인 배춘희 할머니는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살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성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정신대에 자원했다. 한국에 돌아온 것은 예순이 훌쩍 넘은 1980년대.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엔가 가수 생활을 하다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던 배춘희 할머니는 예술가로 불릴 정도로 예술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나눔의 집에 외국인인 오면 통역을 자처했을 정도다. ‘생전 불교에 귀의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다’는 할머니는 정부 지원금을 모아



3000만 원을 중앙승가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았을 정도로 불심이 남달랐다. 배춘희 할머니의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진행됐다. 10일 나눔의 집에서 노제를 한 후 추모식이 진행됐으며 유골은 합천 해인사에 안치됐다. 광주 나눔의 집에는 현재 9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있다. 배현진 기자

조계사 신중단오제 성료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6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중단오제를 개최했다. 행정국장 성진 스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단오제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에 이어 영단 헌다, 소금단지 봉안, 신도 세족식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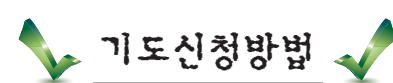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